골프화의 진화, 커피 한잔보다 가볍다

〈Tall사이즈 355g〉

지금 필드는 골프화 전쟁중

아디다스 '아디제로' 300.5g에 불과
나이키 '플라이와이어'는 뒤틀림 방지
풋조이 혁신적 바닥 설계…접지력 높여
'스파이크 없는 골프화' 도심속 활보도



아디다스골프의 초경량 '아디제로'

커피 한잔(Tall사이즈 355g)보다 가벼운 골프화. 도심에서도 신을 수 있는 골프화. 필드에선 지금 소리 없는 골프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골프화는 15번째 장비(프로들이 공식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럽의 수는 14개까지 허용됨)라고 말한다. 그만큼 스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발은 라운드 중 가장 먼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대략 6~7km를 걸어야 하고, 스윙까지 하려면 발에 밀려오는 피로감은 클 수밖에 없다. 가벼운 골프화는 발의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다.

아디다스골프의 '아디제로'(adizero)는 일반 골프화에 비해 무게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상피 부분에 사용한 초 극세사 특수 피혁은 천연 가죽보다 11% 얇고, 39% 가볍다. 일반 골프화의 무게는 약 600~800g. 아디제로 골프화의 무게는 300.5g에 불과하다.

나이키골프의 '플라이와이어'(Flywire)는 기존 제품 대비 약 20g의 무게를 줄여 발의 피로도를 덜 느끼게 했다. 특히 이 골프화는 발의 중심부에서 윗부분까지 발 전체를 감싸는 구조로 스윙 시 신발이 뒤틀리는 현상을 억제시키고 있다. 무게는 줄었지만 기능은 더 보강됐다.

●골프화의 생명은 '바닥'

풋조이의 M:Project(엠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웃솔(바닥) 디자인으로 골프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앞쪽의 L.T.D 아웃솔은 하체에 발생하는 모든 움직임과 느낌을 발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뒤꿈치 부분의 P.I.N.S(퍼포먼스 인서트 시스템)는 스파이크가 얇고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단단한 고정력으로 발의 움직임을 줄여준다.

바닥 전체에는 풋조이의 6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최대화하면서 온몸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극대화해 최적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필드에서 도심까지

골프화가 도심으로 나왔다.

나이키골프의 '루나 스윙팁'(Lunar Swingtip)은 바닥에 스파이크가 없다. 캔버스 타입의 디자인은 깔끔하며서 세련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스파이크 리스' 골프화는 기능보다 스타일을 선호하는 골퍼들을 타깃으로 한다. 바닥에는 스파이크 대신 작은 돌기들이 발의 움직임에 맞춰 반응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아디다스골프의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크로스플렉스'는 100% 방수막 워터프루프(water proof) 기술을 적용한 매시소재로 제작되어 탁월한 방수기능을 제공한다.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통풍성과 육각틀의 작은 스파이크로 접지력까지 높였다. 라임, 옐로, 블루의 비비드한 컬러가 있다.

●골프화로 개성연출

남들과 다른 골프화를 원한다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골프화로 눈을 돌려보자.

풋조이의 '마이조이 프로그램'(www.footjoy.co.kr/myjoys)을 이용하면 골퍼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모델과 생각, 사이즈, 로고 및 이니셜 등을 직접 새겨 넣을 수 있다.

특히 각각의 발 사이즈가 다른 골퍼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다. 양발의 사이즈가 다르거나 폭이 넓어 발 사이즈보다 큰 골프화를 신어야만 했던 골퍼들에겐 만족스런 결과를 안겨 준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가볍고 화려하면서 기능성까지 더해진 골프화가 인기다. 사진 왼쪽부터 스윙 시 에너지 전달력을 높여주는 풋조이 'M Project'와 특별 주문이 가능한 '마이조이', 나이키골프의 경량 '플라이와이어'와 스파이크가 없는 '루나 스윙팁'.
사진제공 | 풋조이·나이키골프

볼빅, 이일희 우승에 함박 웃음

후원 선수 중 해외투어 첫번째 우승
이일희 "볼빅 공 바꾼후 미스샷 줄어"



이일희(25)의 미 LPGA 투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 덕에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볼빅은 올해부터 이일희를 후원하고 있다. 이일희는 볼빅에서 후원하는 선수 중 해외투어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우승 직후, 이일희가 사용했던 노란색 골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볼빅에서 출시한 비스타(Vista) 골프공(사진)이다. 이일희는 이번 경기에서 줄곧 이 공을 사용했다.

비스타는 볼빅의 주요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제품이다. 이중코어 기술과 편심없는 이중코어 제조 공정으로 정확성이 뛰어나다.

실제 경기에서도 효과를 발휘했다. 이일희는 "공의 방향성이 좋다. 볼빅 공으로 바꾼 이후 미스샷이 많이 줄었다. 빗맞았을 때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고 만족했다.

우승 이후 노란색 컬러볼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 볼빅 관계자는 "골프장 및 일반 매장에서 이일희가 썼던 노란색 컬러볼을 찾는 고객이 늘어났다. 주문이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일희의 우승으로 볼빅은 새로운 수식어를 얻었다. 'LPGA 투어에서 우승한 최초의 국산 골프공'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김미현·정일미, 기아차 한국女오픈 홍보대사

'슈퍼땅콩' 김미현(37)과 '스마일 퀸' 정일미(41·이상 은퇴)가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사진).

김미현과 정일미는 6월 20일 개막하는 한국여자오픈에서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대회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K9 고객 초청 라운딩 원포인트 레슨 진행, 후배들과 함께하는 프로암 참가, 한국여자오픈 본선 경기 필드 중계, 갤러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된다. 김미현과 정일미는 현역 시절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 신분으로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주영로 기자

모비스, 라틀리프·벤슨과 모두 재계약

프로농구 모비스는 30일 지난 시즌 전력의 핵이었던 외국인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4·201cm), 로드 벤슨(29·207cm)과 모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 WK리그 올스타전 내달 3일 열려

2013 IBK기업은행 WK리그 올스타전이 다음 달 3일 오후 7시 충북 보은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서울시청-대교-스포츠토토가 '판타지스타'란 이름으로 한 팀이 되고, 현대제철-수원FMC-KSPO-상무가 '페노메논'이란 이름으로 한 팀에 묶인다.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자는 골키퍼 위성희(서울시청)가 됐고, 브라질 용병 쁘레치냐(대교), 박은선(서울시청)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박지성 귀국 후 첫 공식행사 '질레트 이벤트' 참석

박지성(32·퀸즈파크레인저스)이 귀국 후 공식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성은 30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박지성과 함께 하는 압도적인 No.1 질레트 자선 이벤트'에 참석했다. 박지성이 지난 시즌을 마치고 20일경 조용히 귀국한 뒤 가진 첫 공식행사였다. 박지성은 간단한 인사말과 제품 소개만 했을 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KOVO, 새 경기운영위원장에 진준택 전 감독 선임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신임 경기운영위원장으로 진준택 전 대한항공 감독을 선임했다. 진 위원장은 1986~1998년 고려증권 감독, 2008~2009년 대한항공 감독을 지냈다. 2010~2011년에는 KOVO 경기운영위원을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은퇴선수가 현역복귀를 원할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원 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없이 자유롭게 팀을 선택하도록 정관과 규약 일부를 수정했다.

태권도 김소희, 46kg급 세계선수권 출전

김소희(한체대)가 30일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서 벌어진 2013년 국가대표 선발 3차 평가전 여자 46kg급에서 이서희(고성군청)를 3-2로 꺾고 1위를 확정해 7월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리는 2013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방만한 인천, 이번엔 급여 위해 사채 차입 논란

사커 토픽

조동암사장 지인통해 연리 4.15%로 융통
현재 빚 30억원…'재정 건전성' 또 도마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재정 건전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인천 구단이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지적 받았던 재정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선수단 연봉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조동암 인천구단 사장은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몇몇 지인을 통해 자금을 임시변통했다. 인천이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는 30억여 원 안팎이다. 연리 4.15%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비용에는 작년 무산된 인천 승기처리장 골프장 사업 관련 비용도 포함돼 있다.

절차 문제도 제기됐다.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의를 거쳐 자금을 융통했다. 구단 명의로 차용증을 끊고 상환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인천은 작년 2월 프로축구 사상 초유의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인천은 시·도민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쓴다. 연간 190억여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운영비만 매달 15억원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수익사업 없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 몇몇 기업이 예정된 날짜에 치르기로 했던 광고비 지급을 미룬 것도 한 원인이다. 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지역 스폰서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한 LED 전광판 설치비용은 물론이고 일부 선수의 계약금 및 임대료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빌릴 수밖에 없었다. 자산이 선수 밖에 없는 구단이 돈을 빌릴 통로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작년 46명에서 36명으로 선수단 규모를 줄였다. 장기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LPG충전소 사업을 밟아가는 등 구단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영화계의 거장이 만드는 개막식. 30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열린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연출보고회에서 임권택 총감독(왼쪽 2번째)과 장진 총연출(왼쪽 끝)이 개막식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 | 연합뉴스

임권택 등 최고 감독들 "실내무도대회…내년 AG 화려한 이벤트 될것"

개막 D-30일 맞춰 개폐회식 연출보고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30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2013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연출보고회를 열었다. 대회 개막 D-30일에 맞춰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조직위원장, 권경상 사무총장, 임권택 총감독, 장진 총연출, 시인 신달자, 발레리나 김주원과 부문별 감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개폐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 그리고 대행사 ㈜HS애드와 ㈜유니원 등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또 총괄 송승은, 공식행사 이경우, 음악 홍동기, 안무 강옥순, 영상 이현승 차은택, 조명 이상봉, 의상 이유숙, 미술 유재헌 감독 등 국내 최고의 감독들이 참여했다. 주제는 '당신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로,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고 누구나 그 꿈을 펼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수 위원장은 "내년 아시안게임의 프레이벤트로 실내무도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민 모두가 친절, 청결, 질서 등 문화시민으로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권택 총감독은 "이번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을 아시아에 더욱 잘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레슬링 올림픽 복귀?

2020년 하계올림픽 후보군에 선정
야구·소프트볼, 스쿼시도 포함돼

레슬링, 야구·소프트볼, 스쿼시.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영광은 어느 쪽이 차지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0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될 후보로 야구·소프트볼과 레슬링, 스쿼시를 선정했다. 2월 스위스 로잔 집행위원회 당시 IOC가 선정한 25개 핵심종목에서 제외되면서 2020년부터 올림픽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던 레슬링으로선 부활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2008베이징대회까지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야구·소프트볼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꿈을 부풀리게 됐고, 2차례 정식종목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스쿼시는 3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쿼시, 레슬링, 야구·소프트볼의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여부는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를 통해 가려진다. 3개 종목 중 한 종목만 진입할 수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